

현대불교 독자위원회 토론 중계

봉축 특집 '신선' ... 새로운 시도에 박수

현대불교신문 독자위원회가 6월 12일 저녁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첫 회의를 갖고 봉축특집호인 629(5월 23일자)-631호(6월 13일자)에 보도된 내용과 지면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신문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기획과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은 서신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보내왔다.

'불교 통섭을...' 등 기획 돋보여

이남숙 : 629호 봉축 특집호를 보면서 '부처님 오신날'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첫 페이지에서 연화장세계를 보여주는 축하공연의 모습도 장관이었고, 각 종단 여러 스님들의 봉축법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좋았던 기사는 B14에 실린 종립학교 이사장에 게 듣는 청소년 포교 비전에 대한 서면 인터뷰 '청소년 포교 이렇게 해요'였다. 이사장님들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청소년포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것에서 희망이 보였다.

최임배 : 특집호 신문을 받아보고 'DJ가 다시 북한에 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중할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시도를 박수를 보낸다. 내용적으로는 A6면의 '불교 통섭을 말한다.1.2' 기사를 보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특히 학제간 장벽을 넘어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용어 및 응용 불교학 발굴은 신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주영 : 좌담회 '연등축제'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본다. 연등 축제가 10년이상 계속되면서 대중들은 익숙해 하는 부분도 생기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좌담회를 통해 연등 축제의 의미와 본질을 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이 좌담회에서의 아쉬움은 시청 앞 상징물 설치, 예산의 문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남기 : 631호 3면에 보도된 '9년만에 열린 감동의 웨딩마치'를 보고 감동을 느꼈다. 우리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 장애인들도 우리의 부모요 형제자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이 기사는 참으

감동·전문성·시사성 등 적절한 '배합' 노력을

현대불교 제1기 독자위원 명단

손재현(동국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상호(건설교통부 건설교통인재개발 연구원) 김재복(고성동중학교 서무실) 김남기(원주 성불회 포교부장) 김시열(도서출판 운주사 대표) 최임배(도서출판 학지사 편집부장)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민정희(사단법인 로터스월드 국제교류팀장) 이남숙(현대불교 신수회 회장) 김민자(수필가)(무소)



지난 6월 12일 열린 현대불교신문 독자위원회 위원들이 현대불교 629-631호를 모니터링 한 뒤 토론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시열 최임배 이남숙 한주영 이상호 위원)

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남숙 : 631호 15면 '영산재 보존회' 기사는 범공양 이기는 하지만 범패송의 계보, 영산재 의미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좋았다. 전문성과 시사성이 적절히 잘 표현되었다.

독자층에 맞춘 어휘 선택 필요

이상호 : 높은 수준의 학술모임을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급정보를 독자와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일반인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쉽게 소개했으면 한다.

이남숙 : 529호 A14면 '새싹불자를 키울 시간' 캠페인에서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나치'가 주제인데 제목의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온 것 같다. '청소년 포교 이렇게 해요' 중간 부분에 쓰여진 '본선 참가자들 삼기의 목소리도 달랠'에 대해서는 기사내용을 읽어 본 후에 의미를 알았다. 독자들이 청소년층에게 어려운 어휘가 나온다. '저학년들 땀방이 치마에...' 부분에서 땀방이 라는 표현이 어린 이답지 않았다.

'인물경 세상경'도 제목과 글의 내용이 확

연하게 구분되지 않아 아쉽다. 부처님 말씀과 마음지락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경에 대한 뜻과 글의 핵심이 뚜렷했으면 한다.

새로운 스님·역사 발굴 노력해야

최임배 : 권경희 선생의 '삼담심리학과 불교'는 참 좋은 기획이다. 신문이 젊어져야 한다. 젊은 층이 갈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의 경우 심리학을 적용하여 선교하고 있다.

김시열 : '선지식을 찾아서' 면은 새로운 스님을 더 발굴해야 한다. 특히 알려진 스님보다는 뒷방 노스님에게 역사적 기록이 많은 텐데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한다. 또 출판만이 한 면으로 줄었다. 그런만큼 일 반서적 보다는 불교출판사 발행 서적 위주로 면이 채워졌으면 한다.

이남숙 : 앞으로 출판면을 증면한다면 작가 인터뷰를 통해 신간서적을 소개했으면 한다. 또 연재들을 보면 간혹 위주로 선승 들만 너무 부각되는 느낌이 드는데 영불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하시는 스님들도 보여줬으면 한다.

한주영 : 사하촌에 대해 인종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하촌을 가다' 기획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사하촌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부분보다 숨은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하리라 생각한다.

김남기 : 재가불자들의 종단행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광고 디자인에 신경쓰길...

최임배 : 종교신문도 광고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디자인이 가미되지 않은 광고는 신문지면의 수준까지 떨어뜨린다. 불교 언론은 대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해야 한다. 그래야 여론을 조성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정책화 할 수 있다.

이상호 : 불교수행 자체가 의지적이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쳐야 수행자이다. 잘못된 점을 불교 언론이 감쌀 경우 자칫 부처님 사상이 왜곡되고 불교계가 잘못갈 수 있다.

김남기 : 여름수련회의 과다한 비용 책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

한주영 : 불자들은 문제제기에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세상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으면 한다.

김시열 : 현대불교가 독특한 색깔을 가지려면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수행법을 다루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를 읽고

'지도법' 등 정보 위주로 썼으면

'632호 10면 믿음과 믿음1' 페이지에 소개된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하안거 결제' 기사는 현장감과 깊이가 동시에 느껴져서 유익했다.

강남 도심 사찰인 봉은사 시민선원 소개 기사였는데 방부를 들인 회원들의 면접 모습이라든지, 선감 스님의 좌선 지도법 등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지면을 통해서도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는 발심을 일으켜 주기에 충분했다. 다만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기사 비중상 현장 스케치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스님들의 지도법에 대한 설명을 좀더 늘려 지면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기사는 아니더라도 매번 신문을 읽다보면 거의 현장 스케치 묘사를 하다 기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현장의 숨소리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지도받은 가르침들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김정남(강원도 원주시)**

개선 법안 국회 제안 반가운 일

631호 1면 '불교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관련 기사를 읽었다. 사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과 국회가 함께 공청회도 열고 개선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서울 봉은사에 가곤 하는데, 그때마다 고풍스러운 전각 모습 대신 주차장에 즐비한 자동차 행렬이 먼저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종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도시공원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찰 경관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찰의 고즈넉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에 짓자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不法)이 아니 이 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봉은사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오히려 전통사찰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서현(서울 강남구 논현동)**

말로만 어린이 포교 '정말 한심'

631호 1면에서 '조계종 어린이 법회 현황파악' 기사를 보니 교구 본사중 절반이 어린이 법회가 없고 특히 S사는 본 법사 통틀어 한군 데도 어린이 법회가 없다고 한다. 스님들이 전법에 최소한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극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나 라 불교의 앞날을 기대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시자마자 제일 처음 선언하신 것이 전법(포교)이 아닌가?

타종교는 한집 건너 들어서고 세우자마자 성인 예배는 물론이요, 어린이 예배 청소년예배를 자중적으로 일상불란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계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나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해 벨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웃디뉴스 id: 도원)**

독자투고 받습니다

독자여러분께서 현대불교를 읽고 느낀 점이나 신문사에 바라는 점을 200자 원고지 2-3매 분량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wwwkim@buddhapia.com

대불련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단 대불련 발도장짜다!!!

COREA의 고구려를 찾아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고구려의 주무대였던 중국동북부지역 답사를 통해 세계화 시대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고자 합니다.

또 반도의 역사가 아닌 광활한 대륙의 고구려 역사를 탐방하며 대학생 불자들은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펼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주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의 장도 열고자 합니다.

일시 : 2007년 6월 25일(월)부터 - 30일(토) (5박 6일)

장소 : 중국 동북지역(대련-단동-집안-서파-백두산-통화-환인-심양-대련)

대상 : 전국 대학생 약 50명

후원 :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대불교신문사, 중심회(정무스님 재가문도회), 대불련 총동문회



◆ 고구려 역사유적탐방단 일정 ◆

6월 25일(월)	요동반도의 끝을 밟다!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대련도착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 성 백암성! 심양 백암산/ 통화로 이동 유적답사단 오리엔테이션
6월 26일(화)	백두산 천지에 오르다!	서파 / 고산 화원대, 금강대협곡, 5호 경계비, 천치 / 통화로 이동
6월 27일(수)	424년간 고구려의 수도 집안!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집안박물관,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릉, 환도산성, 장군총, 오호모, 중조철교, 국내성 등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졸본성, 오녀산성, 비류수, 장군분, 고군분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강의 1-고구려 역사 바로알기
6월 28일(목)	암록강을 따라서	주몽이 유목민과 정착한 본계 그리고...고구려의 천리장성 호산장성, 환인 / 단동 / 대련, 본계 본계수동굴, 천리장성 호산장성 암록강을 따라서(신의주, 휘화도, 월양도) 강의 2-동북공정 바로알기
6월 29일(금)	대련에서의 마지막 밤	역순감옥, 자연사 박물관, 비사성 답사를 마치며(명가의 강)
6월 30일(토)	요동반도를 떠나며	대련출발 / 인천도착

◆ 후원 안내 ◆

이 시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글로벌시대, 당당한 리더로서, 가슴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 우리의 현 위치를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무한능력을 펼치기 위해 떠나는 저희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불자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큰 거름이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140228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발전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http://town.cyworld.com/yes>)